

# 강원도 양구 대암산 용늪의 지형발달과 환경변화

## The Geomorphic Development and Artificial Change of Environment at the Moor Yongneup, Mt. Daeam, Yanggu county in Gangwon-Do

윤순옥1(경희대학교 이과대 지리학과, soyoon@khu.ac.kr)

황상일2(경북대 사회대 지리학과, hayob@knu.ac.kr)

윤정연3(경희대학교 이과대 지리학과)

강원도 양구군 대암산의 북서쪽에는 한국 최대의 고층습원인 용늪이 위치한다. 용늪은 1968년 학계에 보고된 이래 1989년 자연생태계 특별 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1997년 3월 우리나라가 습지보전에 관한 국제협약인 람사협약(Ramsar Convention)에 가입하면서 최초로 등록한 습지이다. 이 습지에 대해서는 1980년대 이래 생물학, 지질학, 토목학, 지리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많은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생물분류와 생태학적으로 이 지역의 식물상(flora), 습지식물의 군락과 식생변화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한편 용늪에 대한 이러한 학술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환경부와 국방부가 주관하여 용늪을 보존하고자 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이미 그 전에 인위적인 영향을 크게 받아 많이 변형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한국 전쟁 이후 설정된 군사분계선이 용늪의 바로 북쪽인 강원도 인제군 해안면 해안분지인 '펀치 보울(punch bowl)'의 북쪽에 설정되면서, 해안분지에 인접한 용늪은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군사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가 개설되고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산지 정상부임에도 불구하고 지형적으로 평탄할 뿐 아니라 목본이 거의 없으므로 용늪은 동계에 군인들의 스케이트장으로 이용되었다. 많은 연구보고서에서 용늪에 대한 인간 영향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있으나 인간의 영향이 현재 용늪의 생태계 변화와 지형변화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조사 연구한 보고서와 논문의 자료들을 분석하고 현지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암산 고층습원의 지형발달과정과 형성시기를 검토하며, 아울러 인간에 의한 습지 환경 변화를 용늪으로 유입하는 하천과 지표수에 영향을 미치는 유역분지에서 일어나는 식생파괴, 지형변화, 그리고 습지 내의 인간에 의한 지형변형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